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2024. 2.

기 획 조 정 실
(재 정 담 당 관)

2024년 제1차(2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회 의 명 : 2024년 제1차(2월) 투자심사위원회 본위원회
- 일 시 : 2024. 2. 23.(금) 13:30
- 장 소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12명(내부위원 3, 외부위원 9)
 - 내 부(3)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 부(9) : 김성후, 김진환, 박보우, 박유정, 박진우, 성은영, 윤혜진, 이준영, 한지혜 위원
- 안 건 : (투자심사) 봄밤의 클래식 축제 등 13건
(재정공시)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안) 등 2건
- 심의결과 : 적정 7건, 조건부 추진 2건, 2단계 심사 2건, 재검토 2건

【13시 30분, 개회】

1. 봄밤의 클래식 축제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 ○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어떤 예술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와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당 축제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축제가 또 내용이나 형식이나 컨셉에서 조금 동일한 어떤 다른 축제들은 서초구에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절별 축제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계절에는 이 클래식이 아닌 다른 컨셉인 건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사계절 축제를 지금 작년부터 준비했구요. 저희가 봄에는 클래식 축제, 여름에는 청년예술인들의 뮤직앤아트라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음악과 그다음에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을 같이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 청년예술인들만으로 축제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을에는 서리풀 페스티벌이라고, 반포대로를 막고 하는 그런 대규모 축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축제는 '크리스마스 인 서초'라고 그래서 신년, 송년음악회 위주로 이렇게 그것은 실내에서 하는 축제의 개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각각 테마별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사계절 외에 다른 축제가 있죠?

○ 사업부서

- 다른 축제는 저희 과에서 한다기보다도 동별로 잠원에서는 잠원나루축제, 양재동에서는 달맞이축제. 아주 소규모로 지역주민들이 특화해서 하는 축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축제는 이렇게 사계절 테마별 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게 2023년에 이게 조건부로 통과가 됐어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조건부로 통과됐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얘기가 됐던 건가요?

○ 사업부서

- 조건부의 요지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달라,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잘 진행해 보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 전에 한번 다시,

○ 위원장

-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 해보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그다음에 올해 다시 한번 보겠다. 이 조건이었네요?

○ 사업부서

- 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원래 작년에 이제 예산편성 전에 시투를 올리려면 8월에 기본계획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12월에 자료를 올려서 1월에 첫 번째로 제1번 심의자료로 심사위원님들 뵙게 됐습니다.

○ 위원장

-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퇴장하셔도 됩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사업부서 퇴장)

○ ○○○ 위원

- 지금 위원장님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작년도 투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행사성 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렇게 투심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번 주의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 조건을, 사실 축제라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당분간은 활성화해야지 또 경제활성화나 이런 게 있어서 축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또 경고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

서 만약에 내년엔 반복됐을 때는, 올해까지는 두 번 정도는 그런데, 세 번까지 삼진, 삼진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럴 경우는 통과를 안 시켜 준다는 그런 조건을 좀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강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게 의견이신 거죠?

○ ○○○ 위원

- 그러니까 사실은 절차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투심을 예산편성 이후에 올렸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작년에도 동일하게 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행정적인 실수나 사고로 보기에선 두 번 연속적인 실수를 한다는 것은.

행사성 사업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엄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코로나 이후에 지금 또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으로 조금 집어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위원님들 의견 좀 나누셔서 심의 결과를 결정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걱정할 건지.

○ ○○○ 위원

- 일단 사업비가 구비라서요.

○ 위원장

- 열심히 하겠다는데,

○ ○○○ 위원

- 네, 그 절차만 잘 지켜주면.

○ 위원장

- 행정적인 절차만 그런 조건으로 해서 걱정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 간사

- 조건부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

○ ○○○ 위원

- 내년에 또 반복됐을 때는.

○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추진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또 없으신가요?

○ ○○○ 위원

- 안전 관련해서 예산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 관련해 추가하여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고요.

2. 크리에이티브×성수 축제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 사업부서

- 네, 올해 예산 2억 7천만 원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추가되는 것은 추경에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사업부서

- 네.

○ ○○○ 위원

- 그럼 당초에는 그럼 3억 이하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증액된 건가요? 예

산편성을 작년에 할 때는 그때도 이미 9억 8천으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 사업부서

-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크리에이티브×성수라는 일종의 파일럿 사업을 작년 가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반성회를 하고 참여했던 기업들, 시민들, 기획자들이 모여서 세부사업별로 저희가 예산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없던 사업이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본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2억 7천을 잡았고. 그리고 추정이나 저희가 재단에서 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또 기업들의 후원이나 협찬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 이게 임차료가 갑자기, 물론 설명은 하셨어요. 그때는 무료로 이용했다가 지금은 어차피 정식으로 임차료 당연히 줘야 하겠죠. 그런데 임차료가 거의 5배 이상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작년 축제와 지금 축제에 대한 기간이 늘어난 건 아니고 범위가 늘어났나요?

○ 사업부서

- 네, 범위와 참여기업이 아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 위원장

- 범위와 프로그램이 늘어난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그에 따라서 대관 임차료가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 사업부서

- 네. 저희가 작년에 초도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이 사업을 사실은 여러 번 사업설명회도 하고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해서 이렇게 잘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1차 목표를 뒀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아니고 사실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첫 사업에는 취지도 공감해서 굉장히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다수의 프로그램은 유료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문화도시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시범사업이고 이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돈을 낮춰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랑은 어쨌든 유료 프로그램이 사실은 대관료나 이런 부분들을 상쇄하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축제가 정착되고 이런 데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아무래도 이게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기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어느 정도의 실제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대관료는 편성해야 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 ○○○ 위원

- 전년도 평가.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봐요?

○ 사업부서

-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게 홍보나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B2B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관객이나 참여자들의 참여비율이 좀 낮았다. 그리고 저희가 이 행사 자체를 어쨌든 저희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국제적인 행사를 모델로 했습니다. 가장 근접하게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벌어지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같은 축제를 모델로 했었는데, 그래서 성수동의 정체성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 B2B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일반 관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대폭 예산이 늘어난 것도 그런 부분에서 플랫폼과 이 틀을 갖다가 구축하는데, 그리고 홍보 예산이 상당 부분 작년에 비해서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 ○○○ 위원

- 결국에 이 축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려면 여기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창출돼야 하는데, 그러면 문화도시 사업이나 이런 시비 사업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축제가 성장할 수 있는 수익모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사업부서

-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적게라도 유료 프로그램을 계속 일단은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성수동에는 저희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성수동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결국은 이런 정체성이 유지돼야 자신들도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셜벤처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의 어떤 전문성,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의 인프라와 계속해서 결합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유료 프로그램 중에서도 예를 들면 씨티페어 같은 것을 저희가 가장 큰 행사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씨티페어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결국은 B2B로 기업들도 성장하고 홍보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업들로부터 실비나 이런 것들도 받으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예, 질문하시죠.

○ ○○○ 위원

- 지금 대관료로 계획하신 부분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씨티페어나 컨퍼런스 필드를 개최하시고자 하는 장소들이 이미 잘 꾸려져 있는 장소들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축제를 공공에서 하는 것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성수동에 사실 낙후되어

있는 이런 자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조금 단가를 낮추면서 의미도 조금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장소 대관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아무래도 첫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돈을 좀 냈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은 좀 실무적인 판단이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 실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일정 이상의 성과는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성수동이 공간이 대규모로 확보가 돼 있는 공간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사이고, 저희가 이게 예상보다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해서 성수동에서 가장 큰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에스팩토리라든지, 그다음 스타트업이나 소셜벤처가 몰려있는 헤이그라운드나 KT&G 같은 곳과 저희가 전략적으로 MOU를 맺어서 공간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진행했습니다.

○ 위원장

- 더 의견 없으시면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 ○○○ 위원

- 이것도 아까 앞에 있었던 서초에 봄밤의 클래식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 위원장

- 이것도 행정적인 절차가 또 미흡했나요?

○ ○○○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원래는 한 2억 8천, 9천을 편성을 해 놓고, 그러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사업비가 늘어나서 그 사업비가 늘어난 것 때문에 사실 투심을 의뢰한 것이라는 것은 짚을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 위원장

-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전액 구비하기는 하지만 이런 의견이 되나요? 사실은 임차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확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나쁘게 보면 그러면 내년에도 그 임차료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차료 절감에 대한 노력을 정말 했는지 여기에서는 검증이 사실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누군가한테는 굉장한 이익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료 사용료의 절감방안을 다음에는 마련해 와라. 이렇게 조건이 되나요?

○ ○○○ 위원

- 아마 이게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절감방안을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임차료를 줄이라고 하면.

○ ○○○ 위원

- 제가 볼 때 일단은 이 임차료 같은 경우에 특혜성 사업으로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자치구에서 운영 가능한 공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창업사관 관련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특정기업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격 사유로 생각합니다.

○ ○○○ 위원

- 덧붙여서 저도 조금 의견을 드리면 사실 저는 제가 듣기로는 대림창고가 초기에 대관할 때 하루에 2천만 원, 3천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단가가 1대1로 봤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공공이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지역에 낙후된 큰 건물을 활용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하면 조금 더 공익적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지금 장소 선택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 입장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세팅이 다 잘 되어 있고 그냥 임차료만 지불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 축제를 하지 않아도 이

거리에는 항상 사랑이 넘치는 공간에.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들어간다면 조금 후미진 곳, 어려운 곳, 이런 곳일 것이기 때문에 축제의 성과 측면에서는 조금 더 쉬운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장소 선택입니다.

○ 위원장

- 지금 ○○○ 위원님이 부적격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 위원님도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들은 이제 결정을 좀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임차료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우리가 이걸 한 번 이렇게 해주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고 사례가 돼서 참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인데.

○ ○○○ 위원

- 그런데 부적격이라는 것은 다음에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축제라는 것은 시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도 사실은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행사가 9월이면 지금부터 최소한 3개월 전에 대관하고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을 같이 유치하고 그 장소에 맞게 그런 걸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 위원장

- 그러면 재검토는 뭐죠?

○ ○○○ 위원

- 재검토는 여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걸 보완하도록 하는 게 재검토고요. 다시 상정하도록,

○ 간사

- 다시 한번 투자심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 우리 투자심사가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되죠?

○ 간사

- 저희가 다음 위원회는 4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이게 8월이라고 그러셨죠?

○ 간사

- 9월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재검토로 하되 임차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재검토를 하시는 것은,

○ ○○○ 위원

- 임차료가 사업비 전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한번,

○ 위원장

-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 ○○○ 위원

- 맞춰 오시기 힘드시겠죠?

○ 위원장

-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절감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위원님들 보기에 조금 아쉽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얘기해서 그때 4월에 다시 투자심사 할 때 '참 그래도 노력은 했구나.' 그때도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인정해 줘야 하는 건데,

○ ○○○ 위원

- 연속성이 중요한데 이렇게 검토의견을 적시해도 4월에 위원들이 바뀌어버리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 위원장

- 위원님들 다 오실 건데요.

○ 간사

- 4월에는 바뀌십니다.

○ 위원장

- 달마다 바뀌어요?

○ 간사

- 저희가 회차마다.

○ 위원장

- 회차마다 바뀌어요?

○ 간사

- 네.

○ ○○○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꼭 적시를 줌.

○ ○○○ 위원

- 그때는 저희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건을 달 수는 있겠죠.

○ ○○○ 위원

- 이게 정말 시기적으로, 제가 검토한 바로는 필요한 사업이에요.

○ 위원장

- 예, 그것이야 다 인정하는 것이고.

○ ○○○ 위원

- 위원님들을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을 적시해서 다음 사업에는 꼭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 ○○○ 위원

- 저도 축제라는 것이 준비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그런 점을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또 짧은 시간에 하면 굉장히 졸속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간에 대한 임

차료나 이런 부분은 저도 사전에 볼 때 미처 그건 못 봤는데 조금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의문은 있지만 또 이게 4월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면 또 투심이라는 절차 때문에 이 행사 기간에 행사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또 줄속하게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 위원

- 사실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협의도 진짜 어렵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장소섭외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소를 또 바꾸고. 이것을 하려면 상당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

- 좀 어렵네요. 그런데 저는 1년, 2년 이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마다 바뀐다고요?

○ 간사

- 저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 풀이 있는 거고요. 그 풀에 계신 분들의 활동기간이 2년인 거고. 이렇게 위원회 할 때마다 저희가 그 풀에서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오시는 걸로 합니다.

○ ○○○ 위원

- 그런데 일단 행사장 위치도의 그 바운드리를 보니까 여기 지금 위치에서 거의 씨티페어부터 시작해서 패션 성수까지 해서 다 임대하는 데가 거기와 관계성 있는 건물들이예요. 예를 들어서 무신사 같은 경우 패션하고 연관되어 있고, 게토얼라이브는 아트 쪽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장소도 빌림으로 인해서 홍보 효과도 되는데 임대료를 다 주는 것은 한번 다운시키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을 해서 임대료를 좀 더 다운시키는 걸로 조건부를 달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그런 회사들로부터 협찬을 받겠다는 것 아닌가요?

○ ○○○ 위원

- 아까 설명할 때 저도 들었는데 전체가 예산이 아니라 일부 민간의 그런 부분이 포함된 걸로.

○ 위원장

- 9억 이것은 구비고요, 그 이외에 들어가는 수익사업을 해서 더 하겠다는 겁니다.

○ ○○○ 위원

- 한 번 더 불러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보고.

○ 위원장

- 그럴까요?

(사업부서 입장)

○ 위원장

-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이 지금 9억 8천 이천 순수한 구비죠?

○ 사업부서

- 거기에 현재 확정된 본예산으로 편성된 건 2억 7천만 원이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에 아까 말씀드린 잉여금으로 편성될 수 있는 추경이 아마 한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사실은 기업들의 후원이나 협찬으로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전체 구비랑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5억,

○ 사업부서

- 네 5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래요? 그럼 저희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 사업부서

- 민간 재원까지 포함한 총금액이 한 9억 8천 정도입니다.

○ ○○○ 위원

- 전액 구비라고 쓰여 있어서요.

○ 위원장

- 저도 전액 구비라고 쓰여 있어서. 그렇다면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여기서 잠깐, 사정이 변경된 게 있는 게요, 원래는 저희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나오고 저희가 저희 본예산으로 해서 추경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이 저희가 지정이 안 돼서 사실은 전액 구비로 진행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사실은 예산 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문화도시 지정이 안 되고 이러면서 좀 사정이 변경되어서 처음에 원래는 9.8억을 전부 추경으로 2.7억에 더해서 구비로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구비는 한 5억 내외에서 아마 되고 나머지는 민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 위원

- 잠깐만요. 투심 의뢰 당시에는 9억 8천으로 하셔서,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 위원

- 이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해요. 만약에 저희가 조건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 이상은 구비를 사용 못하게 조건을 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뢰할 당시에 금액이 지금 사정이 바뀌었다는 얘기신 거죠?

○ 사업부서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문화재단 비용도 포함해서 우리가 투자심사를 하는 건가요?

○ ○○○ 위원

- 원래 민간재원까지 포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래요? 알겠습니다. 퇴실해주셔도 됩니다.

○ ○○○ 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구비하고 해서 문화재단하고 해서 5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 사업부서

- 네.

○ ○○○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임차료가 7억이 돼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기업에서 기부를 받는다는 얘기신가요?

○ 사업부서

-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씨티페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겠습니다. 에스팩토리에 기업들이 자기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제품을 홍보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저희가 산업전시는 아니고 약간 몰입형 그런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그 자체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 그런 어떤 시설을 갖추고 기업들이 그 주제에 맞춰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공간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기업들의 비용으로 하게 하는 거죠.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9.8억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저희가 추산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씨티페이 공간 구성에 연출, 장비 임차가 지금 4억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민간에서 받는다는 얘기신가요?

○ 사업부서

- 그게 저희가 예산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별로 이렇게 편성은 하지 않았습시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반성회나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런 비용입니다.

○ 위원장

- 혹시 추가적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 ○○○ 위원

- 원래 저희가 투자심사 의뢰를 하려면 재원에 대한 구성을 정확하게 해서 구비가 얼마고 민자가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구분도 지금 안 돼 있고,

○ 간사

- 이게 지금 제가 저희 실무 담당 주무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원래는 당초에 전액 구비 편성을 계획했다가 아까 말한 문화도시 선정 거기에서 떨어져서 이게 예산 내용을 바꾼 것이랍니다.

○ ○○○ 위원

- 그러면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라는 게 나와야 하는데,

○ 위원장

- 변경됐어야 하는데 거기도 아마도 저희랑 비슷한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에는 5억이네요. 그렇죠?

○ ○○○ 위원

- 아니요. 사업비는 9억 8천,

○ 위원장

- 9억 8천은 맞는데 거기에 4억은 민간재원으로 하고,

○ ○○○ 위원

- 문화재단은 2억 얼마 내고, 나머지가 민자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글썬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 위원

- 변경 예산에 대한 민간투자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재의뢰를 받아서 4월에 심사받도록 하시고 넘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 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민간 예산과 그다음에 우리 구비에 대한 사업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재검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 ○○○ 위원

- 하나 추가하면 사업비 규모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 ○○○ 위원

- 아까 임대.

○ ○○○ 위원

- 임대가 됐든, 하여튼 그런.

○ 위원장

- 임차료 절감방안에 대한 마련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에이티브×성수 축제는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3. (旧)공항고(학교이적지) 서울시-교육청 회계간 재산 이관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서울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뭐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사업부서

- 지금 경제실이랑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실은 용역을 작년 9

월에 발주해서 공항고 중심으로 학교시설 전략거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조산업 쪽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K-콘텐츠랑 관련해서 창조산업 쪽으로 지금 경제실이랑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과 지금 필요한 시설들, 신전략거점에 대해서 맞는 이런 대규모 부지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 ○○○ 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대규모이다 보니까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 기간에 기존 부지라든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 건지.

○ 사업부서

-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부지가 지금 공항고가 약간 비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교육청이랑 협의를 통해서 매각대금이 다 나가기 전까지라도 임시적으로, 어차피 안 쓰고 있어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번 계획에서 일단 임시적으로 계획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로 어느 정도 계획이 다 확정돼서 되면 완납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까지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금을 납부를 하시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소유권을 확보한 시기가 10년 후가 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예.

○ ○○○ 위원

- 그럼 그 시기까지는 교육청 소관인 거고, 현재 상태로 그냥 놔두는 시스템인 건가요?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 말씀이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냥 놔둘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도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임시활용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는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어서요. 지금 교육청이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원활하게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 ○○○ 위원

- 사실은 학교 부지를 이관 받아서 주민시설로 만들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부지를 교육청이 쉽사리 사실 폐교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고가 시작이기 때문에.

○ 위원장

- 그러면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활용에 대한 부분은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이걸 시급성도 그렇고, 또 사업 자체가 저희가 지향해야 할 사업이고 그래서요 이것은 그냥 적정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그러면 이 건은 적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신축을 하면 기존 청사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 사업부서

- 기존 청사는 현재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거기가 신월1동이 주거환경이 아파트가 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와 연립 등 그런 주택들이 많아서 주차 수급을 고려해서 일단 동청사가 수급이 원활치 않으면 주차장으로 일단 활용하다가, 그다음에 수급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는 매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주차장으로 쓰려면 건물을 철거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사업부서

- 주차장을 조성하면요? 네, 철거해야지 주차장 조성을 하고, 노면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 위원

- 지금 말씀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청사 거기에 다시 공영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궁극적으로 매각이고요. 거기가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다세대와 빌라와 주택이 많습니다. 한 78%가 그렇게 가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물론 모아타운을 개발하고 있어요. 일부가 개발하고 있고 시작하는 단계지만 그 수급관계는, 아직 주차수급은 조금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모아타운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모아타운이 개발되고 주차장 수급이 좀 원활해지면 매각할 그럴 계획입니다.

○ ○○○ 위원

- 지금 사업 대상지가 환경이 거기가 지하에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고 지상은 공원이잖아요. 입지가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민의 환경 차원에서는 좋은 공간으로 지상을 쓰고 지하에 지금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들, 주차 대수가 거의 한 10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사업부서

- 네, 113면입니다.

○ ○○○ 위원

- 그런데 현재 새로 이 주민센터가 들어오는 주차대수는 82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 사업부서

- 네.

○ ○○○ 위원

- 그런데 거기는 초반에 지하주차장 2개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신축하는 건 지하 1개층만 신축하는,

○ 사업부서

- 2층까지 다 들어갑니다.

○ ○○○ 위원

- 지하 2층 그대로 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 ○○○ 위원

- 그런데 대수도 줄어들고요. 그렇죠?

○ 사업부서

- 네, 개수는 줄어듭니다.

○ ○○○ 위원

- 그럼 기존에 공공주차장에 있었던 그 수요는 어디서 확보를 하실 겁니까?

○ 사업부서

-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이 신월1동 지역에만 4개소가 있습니다. 저지 주차장이 2개소가 있고 그 인근에 곰달래 주차장이 있고요. 그래서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 배정이 남아 있는 대수가 한 12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주민들에게 설명을 사전에 드리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 ○○○ 위원

- 그러시면 주차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신 것이네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굳이 철거비용을 들여서 철거한 이후에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비용적으로 좀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 ○○○ 위원

- 그럼 현 청사와 신축 부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 사업부서

- 현 청사와 신축 부지가 한 두 블록인데요 그건 거리상으로 한 60m, 7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중복 결정을 받으셨나요?

○ 사업부서

-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 있네요?

○ 사업부서

- 예산은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 기금이니까 예산을 미리 좀 확보해 놓자 하는 차원에서 연초에 편성했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볼게요. 지금 1층, 2층, 3층, 4층이 모두 지금 동청사로 쓰는 걸로 돼 있네요?

○ 사업부서

- 신규예요?

○ ○○○ 위원

- 네.

○ 사업부서

- 예, 그렇습니다. 자치회관하고 주민센터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 ○○○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실을 제외한 동청사만으로 생각하는 규모는 얼마나 되시는 거죠?

○ 사업부서

- 동청사 면적은 저희가 870㎡로, 자치회관 빼고 동주민센터 면적만 870㎡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 ○○○ 위원

- 지금 주차면수가 이 계획을 하실 때 예상되는 이용 주차면이 얼마나 필요한지 대비 지금 몇 퍼센트인지가 조금 궁금하고. 지금 113면이 필요 대비 얼마나 확보가 됐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사업 대상지가 어떻게 보

면 블록 안에 있어서 주변 도로가 소로로 되게 협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규모의 건물이 들어왔을 때 주변 도로의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인지, 혹시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요?

○ 사업부서

- 지금 113면에 대해서 이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월1동 지역에만 신월1동 저지구역, 저지구역이라는 부분은 노면주차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양쪽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식으로 이렇게 노면주차장 한 부분이 배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곰달래 공영주차장이라고 인근에 또 공영주차장이 지상으로 된 건물로 된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37대 해가지고 총 126대의 잔여분이 있는데, 주민분들께서는 이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면 여기를 이용을 잘 하지 않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대비해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신월1동 청사를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하겠다고 해서 신월1동 현 청사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생각했었고요. 그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고, 계획상으로는 무조건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주민의 반응을 보고 수급 부분에 있어서 주민 주차가 이게 수급은 가능하더라도 주민이 이용을 안 하면 또 불편한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대안까지를 마련한 것입니다.

○ 위원장

-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딱 차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주차가 없습니까? 현재 공영주차장이.

○ 사업부서

- 현재 거기는 이용률이 좋습니다.

○ 위원장

- 좋다는 건 어쨌든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기존에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를 안 하셨나요?

○ 사업부서

- 증축을 고려했습니다.

○ 위원장

- 증축 내지는 리모델링.

○ 사업부서

- 그러니까 현재 청사 부지요?

○ 위원장

- 네.

○ 사업부서

- 현재 청사 부지는 부지 자체가 면적이 528㎡입니다. 그래서 이 528㎡ 면적으로 건물을 지어도 현재의 연면적이 1,018이거든요. 1,018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지어도 공간이 협소해지고요. 지금 주차장이 5대가 법정주차로 돼 있는데 부지 면적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 땅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영주차장의 부지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크고, 제가 주차장 이용률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건 이 이용률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 이상으로 사실은. 그리고 이 안에 더 공영주차장을 집어넣어도 주민자치단체 건물이 이용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그리고 더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뭘까.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이 공영주차장을 없애도 된다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조사를 해보셨나요? 인근 주민들은 찬성하나요?

○ 사업부서

- 인근 주민들께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아직 못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동청사 부지만 생각했고.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주차장에 잔여분이 남아 있고,

○ 위원장

- 그건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요.

○ 사업부서

- 거기까지만 저희가 정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용률이 높는데 이게 계속 당분간은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신월1동에 모아타운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 그럼 수요들이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사업부서

- 네. 그렇게 되면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중기적으로 보면 그 수요가 이 모아타운이 조성되면 주차수급률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의 이용률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건립하시는 목표 연도는 언제세요?

○ 사업부서

- 모아타운이요?

○ 위원장

- 아니요.

○ 사업부서

- 청사요?

○ 위원장

- 예.

○ 사업부서

- 2028년입니다.

○ 위원장

- '28년에 완공이요?

○ 사업부서

- 네.

○ ○○○ 위원

- 주차장은 언제 생긴 거예요?

○ 사업부서

- 여기 곰달래 주차장이 2005년도에,

○ ○○○ 위원

- 지금 현재.

○ 사업부서

-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19년째가 됩니다.

○ ○○○ 위원

- 안전등급은 어떻게 나왔어요?

○ 사업부서

-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지난 연도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진단을 했거든요.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 위원장

-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참 이런 게 어려운 게,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노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되면 그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이게 공영주차장이랑 이것을 다 쓰겠다면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으면 민원이 이게,

○ ○○○ 위원

- 저도 사실은 사업 대상지에 원래 공영주차장을 그만큼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센터의 건축물을 짓는 데 필요한 주차대수 확보하고. 그것을 충분히 확보하면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없애면 그만큼을 다른 데서 수요 있으니까 그걸 쓰라고 하고 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지금 활용도가 좋은데 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있는 현 청사 사진을 보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 리모델링은 절대 안 될 것이고, 신축하더라도 여기에는 그만큼 수요될 면적하고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 사업지 선정을 했는데 이 사업지 대상지가 꼭 여기여야만 하느냐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 ○○○ 위원

- 구 입장에서는 토지비가 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here를 선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안전등급이 D등급이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거기도 수리비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할 바에야 아예 다 걷어내고 새로 짓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이게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여기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안 될 겁니다. 그걸 조건으로 줘도 안 될 겁니다. 이유는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또 늘어날 겁니다. 어쨌든 지하로 파야 하는 것이라서 지하 1층 팔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이라서.

○ ○○○ 위원

- 저희가 주차타워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지상으로 주차타워 같은 걸로 기계식 주차로 올라가면 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조금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주차대수에 대한 게 걸려서 사실은 조건부 적정으로는 했는데.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은,

○ ○○○ 위원

-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동청사 면적은 사실은 한 500에서 한 550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동청사 면적이 사실은 870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다 강당이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어떻게 보면 동청사에 가까운 면적이예요.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이것은 어쨌든 신축은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조건을 달고 다시 설계가 나온 이후에 확인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면적에 대한 부분도 좀 과한 것 같고, 또 주차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2단계 심사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 위원장

- 아까 저는 우리 ○○○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부지가 굉장히 생각보다 커요. 이게 커서 제가 건축은 아니지만 디자인을 해보면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 주거지와 상관이 없는 곳에서 유치해서 잘하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주차장 확보를 최대로 해보고 청사 전용면적이라든지 구체적인, 여기 보니까 2023년에 기본구상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시해서 다음에 보는 걸로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 ○○○ 위원

- 2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 ○○○ 위원

- 재검토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위원장

- 2단계.

○ ○○○ 위원

-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동청사나 이런 것을 필로티 구조나 이런 걸로 해서 1층도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것은,

○ 위원장

- 그런데 주민센터의 필로티는 이왕 건립하는 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서 필로티는 그게 약하고 안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교통약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하고. 그 옆으로 주차타워를 뭘가 하든지, 아니면 지하로 주차타워를 하든지 방법들을,

○ ○○○ 위원

- 어쨌든 건폐율, 용적률을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못 찾아서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조금 다른 대안으로 2단계로 얘기를 좀 더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여유가 되면 옥상에 현 부지에 있는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대체 대안을 마련하신다든가, 아니면 또 기존 청사를 굳이 민간에 매각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철거까지 하고 나서 매각을 하는 것은 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주차장은 한 번 건립하고 나면 이후에 다시 다른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신 게 좀 많이 걸리기는 하네요.

○ 위원장

- 이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 건물은 리모델링은 안 되고 다른 데 빨리 옮겨야 하는데 찾을 수 있는 데는 만만한 게 공영주차장이고, 그 부지를 했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 꼭 차게 했더니 과도한 것 같기도 하고. 공영주차장 면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 위원

- 주민 입장에서서는 주차대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또 새로운 주민센터가 좋은 게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고.

○ ○○○ 위원

- 여기 양천 이 지역이 목동, 신정지역하고 신월지역하고 완전히 양극화가 심한 지역인데요,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비행기가 지나가는 노선이 있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될까?'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이쪽 지역을 좀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 건립은 조건부 추진 중에 2단계 심사로 해서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라든지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2단계 심사로 하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 위원

-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청사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지금 4층까지 짓는데 거의 동 기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5. 강북구 번3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사업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이게 신규로 지으면 좋기는 좋은데 다른 동에, 송천동이나 수요3동, 인수동 이런 데 보면 이런 데도 90년대에 지은 오래된 곳이잖아요. 그리고 주민 1인당 동주민센터 면적을 보면 여기서도 지금 이 번3동보다 훨씬 더 인

구 대비 작은 규모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번3동이 우선순위가 된 거죠?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송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조합에서 기부채납 할 예정이고요. 수유 3동은 지금 우리 구청 신청사가 들어가는데 그 안으로 1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소가 되고요. 그래서 번3동이 그 다음으로 건축 연도가 제일 오래돼서요.

○ ○○○ 위원

- 이게 동주민센터 면적만 거의 한 900㎡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맞나요?

○ 사업부서

- 네.

○ ○○○ 위원

- 이게 왜 이렇게 큰 거죠? 그만큼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시나요?

○ 사업부서

- 상주 인원이 거기에 저희들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복무요원, 그다음에 예비군중대, 그다음에 사례 관리하는 복지도우미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 ○○○ 위원

- 그분들도 일반 직원들이랑 똑같은 크기의 그런 업무공간을 부여받나요?

○ 사업부서

- 어찌 보면 더 많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고,

○ ○○○ 위원

- 상담실은 따로 있잖아요.

○ 사업부서

- 상담실 따로 없습니다.

○ ○○○ 위원

-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 만드는 곳에 상담실, 회의실에 다 있던데요?

○ 사업부서

- 아니요. 그 상담실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장애인분들이 오거나 아니면 수급자분들이 오거나 그러면 사회복지 직원이 가서 상담하는 것이고, 옆에 앉아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직원들보다는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한 가지 여쭙볼게요. 안전진단 받은 게 2019년인데 최근에 받은 거는 없나요? 기존 청사에 대해서.

○ 사업부서

- 없습니다.

○ 사업부서

- 그때 당시 2019년도에 B등급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보면 내진성 성능평가 결과가 Y 방향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왔었어요. 지금 자료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보강방안이 전담벽 보강방법하고 철골 브레이스 보강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상주해 있는 직원들이 다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청사가 B등급이라 하더라도 모양상은 그렇지만 실지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 위원

- 지금 현재 청사에 승강기를 설치한 게 한 5년 정도 됐고, 기존에 또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몰비용이나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 사업부서

- 실제 어울림 지하 공간을 사용했는데요 지하가 지금 엘리베이터 이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로 주민분들이 장애인분들이 그걸 사용해야 하는데 활용성이 없습니다.

○ ○○○ 위원

- 지금 주차공간이 8대로 계획된 것 같은데 지금 상주인원이나 방문 인구를 고려했을 때 이게 충분한 건가요?

○ 사업부서

-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우리가 한 5대를 확충해야 하는데, 연면적이 1,000㎡니까. 지금 2면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청사 지을 때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 ○○○ 위원

- 신청사를 지으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나요?

○ 사업부서

- 8대.

○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 퇴장)

○ ○○○ 위원

- 이 사업은 사실 시에 특교 15억 정도 요청한 사항인데요,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어쨌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했고. 일상적인 얘기로 행정공백 및 주위 불편 최소화, 이런 것만 얘기했어요. 이것은 조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자치행정과 의견은 특별히 무리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어쨌든 이게 시 특별교부가 들어가는 돈이기는 한데,

○ ○○○ 위원

- 네, 특교가 자치행정에서 의견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 관련 승인부서는 걱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 없으면 이걸 걱정한 것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구로5동 청사 이전 건립(리모델링) 사업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신청사 건물은 이미 다 매입을 한 거죠?

○ 사업부서

- 예,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럼 만약에 주민센터를 안 옮기면 그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 없는 건가요? 없나요?

○ 사업부서

- 지금 저희가 구로동 청사하고 희망복지재단하고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로동 청사가 이전을 못 하게 될 경우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 ○○○ 위원

- 그럼 처음부터 구로5동 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 건물을 매입하신 건가요?

○ 사업부서

- 예, 그렇습니다.

○ ○○○ 위원

- 이번에 2단계 심사라 제가 1단계는 없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 건물을 매입하셨을 때 원래 여기 취지가 보건소에 기존에 있던 공간들을 자꾸 쓰고 하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 사업부서

- 네, 같이 하다 보니까 동청사도 부족하고 보건소도 부족하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 위원

- 그렇죠. 그럼 동청사에 정말 적합한 규모의 그런 건물을 찾는 게 맞는데 너무 큰 건물을 왜 이렇게 찾았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고요. 거기에 주보다 부가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평생학습관이니 뭔가 정체성이 더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이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이유는 알겠는데 그 이유에서 벗어나서 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가지지 않았나. 그 규모가 너무 큰 건물을 그것도 리모델링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첫 번째로 건물 선정이 맞는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목적 강당이니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여기를 리모델링 하면 주차수요가 너무 적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주차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주차장은 현재 18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거리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거리공원 지하에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리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26년 말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예상대로 진행이 되면 그건 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 위원

- 그러면 몇 대가 거기 거리공원에,

○ 사업부서

- 거기 202면 조성 예정입니다.

○ ○○○ 위원

- 바로 앞에 근접해서 있어요?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주차장 수요는 이제 가능한데 저는 첫 번째. 너무 과한 규모를 선택하지 않았나.

○ 사업부서

- 아무래도 저희도 규모에 맞게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매물이 그렇게 딱히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위원

- 그럼 이 건물은 원래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다중이용시설인데요, 1층에는 은행, 또 일반 회사의 오피스의 사무공간으로 쓰이고 있던 건물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청사를 옮기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은 다 나가는,

○ 사업부서

-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 ○○○ 위원

-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민센터로 생각하기에 너무 큰 건물 아닌가요? 이것을 왜 사신 거죠?

○ 사업부서

- 지금 저희 구 자체에서 행정수요보다 본청 건물에 대한 부분에 행정 부분도 있고요.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드리면요, 지금 타 동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나 건물 자체가 비어 있는 건물이나 행정수요에 비해서 건물이 나와 있는 건물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할 건물 자체가 작은 건물, 큰 건물을 따지기보다는 이 안에서 저희가 항상 그런 건물들을 찾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선택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장

- 이것은 우리 2단계 심사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의견을 물어 보고 싶은 게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요. 특별교부금 지원조건 미충족.

○ ○○○ 위원

- 이것은 저도 살펴봤는데요, 이 특교는 현재 있는 건물이 30년이 넘으면 특교 지원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건물은 보건소 건물인데 이

의견 자체는 조금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또 복합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주셨는데, 사실 요즘은 복합건물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활용성도 높이고. 아까 번3동이나 이런 데처럼 전체를 주민센터로 쓰게 되면 낭비요인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주민센터하고 같이 있으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짓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도 면적은 조금 넓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하죠. 청사에 대한 면적이 좀 과한 게 있으니 사실은 이게 복합건물이니까 충분히 다른 층을 활용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마련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 없으시면,

○ ○○○ 위원

- 하나만 더 붙어주시죠. 프로그램 관련해서 수익성지수인 PI가 굉장히 낮다고 첨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올릴 수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추가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 위원장

- 추가해서 저희가 조건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7. 천호유수지 복합건축물 건립 사업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위원장

- 혹시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 위원

- 지금 천호유수지 내에 유희공간 활용방안이잖아요? 그런 것을 지역주민한테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행근거에서 이렇게 보니까 용도별로 건축물의 분류에서 교육연구시설에 도서관으로 해서 분류하셨더라고요.

○ 사업부서

- 도서관 말고도요 그 옆에 편의시설에 키즈카페도 가능해서 같이.

○ ○○○ 위원

- 그런데 용도의 분류에서 또 건축에서 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분류에 따라 주차장 대수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서관이라는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열람 도서 수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들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도서관인지 뭔지 이렇게 보다가 여기 세부 내용 보니까 그냥 스마트도서관 정도의 이미지로,

○ 사업부서

- 네, 스마트도서관 정도입니다.

○ ○○○ 위원

- 거의 이렇게 되면 근생시설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데 교육연구시설에서 도서관 분류를 해버리면 건축 법규적으로 기준이 많아서 좀 애매해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쭙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평면을 보니까 주차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기존 것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거기가 지금 우수지 고시가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도로,

○ ○○○ 위원

- 그런데 공영은 이 시설물이 없을 때 필요한 수요잖아요.

○ 사업부서

- 주차대수가 29대 정도 하던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로티 형식으로 짓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를 주차공간으로 만들면 한 51대 정도,

○ ○○○ 위원

- 그럼 지금 1층에다가 필로티로 주차가 있는 걸로 지금, 아, 여기 이거요?

○ 사업부서

- 예. 주차가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 ○○○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각종 인증하고 수수료 같은 게 조사 측량 비용에 대한 것들이 검토되었는지요? 그게 여기 공사비 적정성 검토에 추가가 안 돼 있길래. 그런 인증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책정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예비비에 넣든가.

○ 사업부서

- 저희가 예비비를 좀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 ○○○ 위원

- 그럼 거기 추가로 비고란에,

○ 사업부서

- 그리고 실제로 잡아왔습니다.

○ ○○○ 위원

- 그다음에 이 도면이 픽스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기본계획안으로 하

고 이것을 나중에 발주 다시 내실 건가요?

○ 사업부서

- 다시 실시 용역을 해야 합니다.

○ ○○○ 위원

- 그랬을 때 입찰안내서나 지침을 만드실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 보니까 직통계단 2개소 이렇게 해서 이게 대경관 구조라 3층, 4층이 꽤찮은데 여기 탈의시설이 지금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왕이면 화장실하고 연계해서 이 공용부 쪽으로 빠지는 쪽으로 지침서에 글로 써놓으면 설계하시는 분이 공모할 때 이런 걸 또 감안해서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사용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네, 알겠습니다.

○ ○○○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 ○○○ 위원

- 여기서 제시한 경제적 타당성 부분은 과대 추정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지자체에서 만드는 센터의 운영적자 문제가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렇게 복합청사를 지었을 때 어떠한 차별화된 운영계획이나 운영수지 적자를 면케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접근하시는지.

○ 사업부서

- 이게 우리가 짓게 된 원인이 그 천호지역 원도심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요청해서, 단체 민원을 저희한테 내서 시작된 건데요. 강동 같은 경우 성내, 천호지역이 공공체육시설을 하는데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어

야 맞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너무 커서 저희는 그것만 하나만 가져도 사업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 ○○○ 위원

- 체육시설이 이 근처에 없어요? 해공,

○ 사업부서

- 해공은 상당히 멍니다.

○ ○○○ 위원

- 거리가 한 1km가 안 되죠.

○ 사업부서

- 거기에 800m 옆으로 2024년 9월에 수영장이 하나 생깁니다.

○ ○○○ 위원

- 해공 체육센터예요?

○ 사업부서

- 아니요. 새로 별도로.

○ ○○○ 위원

- 그럼 많이 있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그런데 이쪽은 종목이 다 틀립니다, 이쪽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너무 열악합니다. 솔직히 원도심은 저희가 맨날 주민들한테 그것 때문에 비판받고 있습니다.

○ ○○○ 위원

- 이게 우수지에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침수나 유속

에 지장을 주거나 이럴 우려는 없어요?

○ 사업부서

- 서울시 우수지 관리 기본계획에 보면 거기에 지장을 주게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 자체가, 그 자체가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 ○○○ 위원

- 통상적으로 여기 물 잠기는 데가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 사업부서

- 제가 공무원 생활 거기서 30 몇 년 했는데요. 그쪽에 한 번도 안 잠겼습니다.

○ ○○○ 위원

- 또 하나만 여쭙볼게요. 저희 실무 직원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주변에 좀 냄새가 많이 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사업부서

- 그런 민원이 제기돼 왔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28억을 시비하고 국비 받아서 주민 민원 때문에 작년엔, 물론 거기가 우수지가 아주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천호우수지라는 게 거의 마을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8억을 들여서 저감장치를 3개를 설치했습니다. 빗물펌프장하고 같이 거의 동네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천호2동에서 자치프로그램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그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 ○○○ 위원

- 여기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빠진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면 또 시비를 더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시비 요구는 안 할 거죠?

○ 사업부서

- 시비는 지금 이것을 하기 전에 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작은도서관 해서 20억 받는 걸로 돼 있고. 키즈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5억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35억 8,500만 원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사업지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할까 봐.

○ 사업부서

- 한도가 일단은 20억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더 요청할 수가 없어서요.

○ ○○○ 위원

- 시비는 어차피 기준에 맞춰서 주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증가할 여지는 없습니다.

○ 사업부서

- 시에서 더 안 줍니다.

○ ○○○ 위원

- 서울형 키즈카페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근에 수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신가요? 지역에 키즈카페 이용 대상으로 산정하고 계시는 인원이 어느 정도일까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7,3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는데 설문조사에서 그런 어린이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쪽에 넣은 겁니다, 그쪽 지역에. 그래서 체육시설이 40%로 1위를 해서 저희가 담당하게 됐고요. 문화시설 이런 게 37% 정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설문조사를 인근에 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 위원장

- 프로그램 보면 운동시설인데 스마트도서관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계속

시끄러울 텐데 도서관을 이쪽에다가 프로그램화 시켰다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 ○○○ 위원

- 그래서 제가 언급한 게 아까 교육연구시설에 도서관이라는 걸로 여기서 그렇게 내세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위원장

-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도 저기이실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막 집어넣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도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막 시끄럽게 테니스 치고 스쿼시하고 애들 키즈카페 떠돌고 막 그럴 텐데, 자전거 안내센터는 또 뭘가요? 거기도 주민이 요구하는,

○ 사업부서

- 그 옆쪽으로 강동구의 자전거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붙어있는 자전거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거리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도입하게 됐고요.

○ 위원장

- 네, 저희가 물어본 거고요.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위원장

- 사실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이 자체를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 ○○○ 위원

- 제가 사실 검토의견 마지막에 쓴 게 기존 우수지 복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자료 다 제시하라고 이렇게 쓴 부분인데, 방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이 제일 얘기가 선행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 위원장

-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이게 사실은 다 되어 있는데 제시가 안 돼서 우리가 모르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조건부 추진 2단계 심사를 해서 기술적 검토라든지 우수지 기능 저하에 대한 것들까지, 그리고 사업비를 재산정해서 이게 중투까지 가야 하는 건지도 꼼꼼히 그때 다시 제시하고, 프로그램도 사실은 조금 미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활용방안들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 추진 2단계 심사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위원 다수

- 좋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 위원

-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공간 구성이 초기 단계인 것 같고 느슨해 보이는데 사업수지 전망에서 1년 수입을 4억 8천만 원 정도로 잡아서 이 체육시설 사용료 산출상세근거를 제시한 게 상당히 낙관적으로 잡혀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 인원을 굉장히 많이 잡고 회전율도 굉장히 많은 걸로 잡아서 이게 유사한 규모의 타 구의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 위원장

- 수익구조의 유사사례 검토를 제시하는 걸로 추가하겠습니다.

8. 태릉어울림도서관 신규 건립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프로그램은 층별로 종전보다 확실히 적절하게 많이 잘 배치를 하셨고요. 그런데 건축하고 인테리어를 통합해서 하는 공사는 맞는데, 결국은 그러면 인테리어 설계비를 추가해야 해요. 공공발주사업에서 건축사의 대가기준을 보시면 거기에 건축사의 업무에 제외 업무가 인테리어는 제외잖아요. 그런데 그걸 합해서 통합설계를 할 때 설계비에 대한 게 반영이 돼야, 지금 보니까 한 4억 정도로 건축설계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인테리어 설계비를 좀 추가를 해줘야, 아니면 분리 발주해서 아예 그건 따로 공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결국은 인테리어 설계비를 추가시켜주셔야, 설계비 전체 그 안에다 포함을 시켜주셔야 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4억인데 지금 이 비용하고 이렇게 보면 한 6억 정도? 이 정도가 토탈 금액이 돼야 이게 비율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건축설계에서 그냥 건축공사 기본 마감만 해요. 그러면 인테리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평면, 입면을 다 쪼개서 이것을 도면을 못 그리거든요. 그건 인테리어 업체한테 맡겨야 해요. 그 비용은 따로 넣으셔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제가 좀 질문할까요? 지금 이게 재상정 건이에요. 두 번의 재검토가 있었나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2023년에 7월에 재검토, 9월에 재검토가 있었고. 거기에서 계속 얘기되는

계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성 재검토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공공도서관 부족 현황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 검토해 주신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장

- 이 건은 사실 재검토가 두 번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검토하신 위원님들은 이 안에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 ○○○ 위원

-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

- 아, 두 분이 계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제일 잘 아시니까 재검토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 ○○○ 위원

- 제가 이것을 다시 받아서 보니까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지금 용도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조건부 적정으로 아까 인테리어 설계비만 좀 추가해서 집어넣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 위원

- 같은 의견입니다.

○ ○○○ 위원

- 공공도서관의 현황 이런 걸 가지고 재검토 의견을 다시 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

요. 그래서 실제 여기 이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공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서관 수가 부족한 부분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으니까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여기는 재검토를 두 번이나 한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적정으로 해도, 인테리어 비용 그것은 나중에 또 현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 ○○○ 위원

- 넣어야 해요. 지금 4억이 너무 작더라고요. 보통 한 6억 정도. 공사비 대비 비율로 따지는데,

○ 위원장

- 인테리어 설계비를,

○ ○○○ 위원

- 그것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 재검토하라는 정도로,

○ ○○○ 위원

- 예비비에서 어쨌든 조금 넣어주는 것으로.

○ ○○○ 위원

- 어차피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 ○○○ 위원

- 네, 그냥 걱정으로 하고,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건축사 요율을 충분하게 잡아왔더라고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

- 이게 도서관에 일반적인 것이면 그냥 일반 건축 마감으로 다 가면 돼요. 보통 건축에서는 홀하고 일부분에 대한 것만 처음에 하는데 여기 지금 내용 보면 실명을 보면 북라운지라든가 굉장히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인테리어는 설계를 해야 해요. 인테리어 설계를 해야 이 디자인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료 마감들이 달리 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아마 가야 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걸 아예 공사를 따로 분리해서 콘텐츠까지 연결해서 전시공간 개념으로 이게 공모가 다시 분리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 위원장

- 이것은 그냥 제 생각에는 인테리어 비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별도로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걸 그냥 적정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 원효가도교 하부 도로확장 및 보행통로 신설 사업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혹시 공사 중에 교통처리계획이 어떤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행로가 2개 있는데 하나는 공사 중에도 계속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운영과의 공사장 소통대책 심의를 받았고요. 차로 4차로를 2개 차로로 양방향 1개 차로씩 통행을 시키고, 양쪽에 보행로를 확보하는 형태로 교통처리계획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버스노선도 많이 지나가고 차량도 많아서 공사 중 일 때 굉장히 혼잡해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호 같은 것도 연동해서 조금 바꾸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것은,

○ 사업부서

- 경찰의 통제를 용산역 전면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줄여서 차량 수를 늘렸고요. 그다음에 양쪽 교차로에 모범택시 교통통제수를 배치해서 출퇴근 시간대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 관련해서 현재는 초기에는 1월 초에 시작했는데요, 초기에 한 1주일 정도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이외에 교통 불편 민원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용산구에서는 철도공단에게 예산만 지원해 주고, 시공은 철도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 위원

- 이게 너무 어려운 공사라서요. 철도는 계속 다니는 것 아니에요?

○ 사업부서

- 예.

○ ○○○ 위원

- 걱정됩니다.

○ 사업부서

- 새벽시간에 다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철도를 통과하는 도로랑 보행로 모두 통과하는 것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위원

- 특히 안전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걱정입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고맙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적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남부순환로(봉림교) 지중화 사업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경제성 분석을 좀 보다 보니까 B/C가 5.5로 굉장히 큰 숫자가 나와서 왜 그런가 봤더니 편익을 계산하실 때 주변 유동인구에다 교통비를 곱하는 형식으로 1년치의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동인구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닌데 일단 첫째는 그것이고, 둘째는 그 사람들의 교통비랑 지금 여기를 걸어갈 때 편익과의 관계를 제가 좀 찾기 어려워서 지금 그 편익을 산정하는 근거가 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혹시 설명 가능하실지요?

○ 사업부서

- 이 부분은 실은 저희가 오기 전에 이 서류가 제출돼 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 여기가 신림역하고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림역이 서울시 지하철에서 사용 사람수로 따지면 5위권 안에 드는 역이라고 저희가 기술도 했지만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밀리고, 또 기존에 교통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보도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아마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전체 유동인구로 맞춰서 계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사실 유동인구 자체가 포인트는 아니고 왜 그 사람들의 교통비랑 여기에 지나갈 때 편익과의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게 더 포인트였어요.

○ 위원장

- 약간 과하게 잡으신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지금 파란선으로 된 나머지 구간은 내년이나 후년에 지중화를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예. 파란색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는 아마 한 4, 5 월경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 지중화가 시점과 종점이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중화가 되면서 종점부에서 안 하고 있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그냥 저기로 올라가나요? 전신주 위에서 이렇게 그냥 쪽 올라가는 건가요?

○ ○○○ 위원

- 여기서 끌어당기고 건너가서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 위원장

- 그다음에 제가 의견을 낸 게 있는데, 이게 보행환경 개선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가로수랑 가로수 사이에 전신주가 보통 있지 않나요? 전신주가 없어져도 보행공간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 사업부서

- 전신주가 이렇게 있으면서 각종 통신주도 마찬가지로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통시설물 보면 박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분전함 같은 것, 이것이 여러 개가 같이 있다 보니,

○ 위원장

- 그러니까 저의 핵심 요지는 지중화되는 것은 좋고 다 좋은데 지중화를 시키면서 보행환경 개선도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주만 딱 뽑으면 실제로 보행환경 개선되는 건 없거든요.

○ 사업부서

- 보도가 정비가 되다 보니까,

○ 위원장

- 유효 보도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수가 중간에 있고. 그러면 실제로 사실 유효보도 폭은 변함이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몇 가지 그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지중화 공사를 하는 곳이 대부분 역세권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앞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든가 그러면서 보행환경을 같이 겸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럼 이 거리에 분전함이 몇 개나 지상으로 올라오나요? 지금 진행하시는 바운드리에.

○ 사업부서

- 이걸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서요, 한전과 통신 그쪽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 결과가 나와야,

○ ○○○ 위원

- 기준이 있나요? 100m마다 200m마다 분전반이 하나 모아서 그것을 한다든지. 외부에 나오면 그게 도시 미관에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잖아요. 다 지중화하더라도 그 분전반들이 이렇게 박스가 딱 보도에 올라와야 하니까.

○ 사업부서

- 지난번에 설계사하고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걸 부탁을 드려봤는데,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준다고 했는데 최종 실시설계가 나와야 알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바운드리가 있길래 저는 면적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도로변의 이 선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 사업부서

- 예, 맞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그 안쪽에는 전신주가 없나요?

○ 사업부서

- 이면도로 안쪽으로도 있습니다.

○ ○○○ 위원

- 그것은 놔두고 이 가로만 하시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일단 간선도로랄지 사람들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 ○○○ 위원

- 필요성이나 이런 건 인정이 되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의견이지만 나중에 사업비 증액 이런 부분들은 항상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 위원장

- 어쨌든 이게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금 공사하고 있고, 축 라인을 사실 여기만 없앨 수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걱정이 낮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남부순환로(봉림교) 지중화 사업은 걱정할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제가 지금 이 히스토리를 들으니깐 이 구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됐는데. 895m에서 337m로 구간이 줄면서 어떻게 보면 웅색해진 이게 됐는데, 저는 궁금한 게 337m의 시·종점에 기존의 도로와 이 구간이 만났을 때 교통처리가 문제가 없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이걸 하면서 교통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도로 폭도 넓고요. 6차선이지만 도로 폭도 넓고, 보도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보시면 왜 이 공간이 이렇게

놓고 있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그 정도로 교통환경은 좋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시·종점에 대한 교통처리가 완료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 사업부서

- 저희가 자체 검토한.

○ ○○○ 위원

- 그러면 그 시·종점이 예를 들어서 3차선으로 내려오다가 2차선으로 줄거나 이런 형태로 그 구간이 변동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그렇게 되죠. 잠시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 복원 상부 구간, 위에 구간 6차로인데요, 6차로는 직진 차로가 아니고 좌회전 차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원되는 4차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직진, 좌회전 공용을 하기 때문에 차로수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위원장

- 예, ○○○ 위원님.

○ ○○○ 위원

- 기존 심사에서 경제성 타당성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요, 편익 추정을 하실 때 사실 WTP가 514원으로 나온 건 정말 낮은 건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체로 CVM 적용기법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온 건지. 사실 애도 아무리 많이 측정돼도 이런 공원 관련 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편익이 크게 측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금액이 궁금하더라고요.

○ 사업부서

- 저희들이 이걸 했을 때 2,609원이 나왔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사실상 편익이전법으로 계산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최초 타당성 조사 때 활용하신 환경개선편익 5만 8,692 원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하신 건가요?

○ 사업부서

- 이게 한 가구에 대한 편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구 수 2.25인으로 봐서 5만 8천 원을 2.25로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10%만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용역 때 10%만 적용해서 저희가 똑같이 10%만 적용했거든요.

○ ○○○ 위원

- 사실 기준으로 삼은 환경개선편익, 사업 관련된 편익 값 자체가 사실은 지금 시점과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너무 오래된 게 사실이라서 조금 더 낮춰도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높게 반영을 하셔서 이게 사업 통과를 위해서 너무 편익을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문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보다 더 낮게 혹시 반영하게 되면 B/C가 많이 낮아지시나요?

○ 사업부서

- 기존에 했던 것을 그대로 저희들 따라 했거든요. 그래서 10%로 했는 것에 대해서 물론 10% 낮추면 좀 더.

○ ○○○ 위원

- 궁금해서 여쭙보는데요. 이게 너무 짧은 구간 아닌가요? 한 300m 이것을 왜 하는지.

○ 사업부서

- 구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여기 보시면 복개하천 하천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구간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활용도가 가장 높은 구간에 대해서 자른 겁니다.

○ ○○○ 위원

- 어떤 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건가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가요? 이게 왜 높나요?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 말 같이 들리겠지만 교통하고요, 토지 이용이나 하천 환경 이렇게 해서 복원할 때 좀 어려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버린 것이고. 복원할 때 가장 공사적으로나 활용도 면에서 크다고 판단되는 곳을 자른 겁니다.

○ ○○○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평구 이쪽이 엄청 교통지옥이잖아요. 저는 이게 길이 안 막힌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도로가 넓어서 괜찮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렇게 3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줄고 또 다시 늘어나고 하면 사실은 이게 병목현상이 엄청 늘어나지 않나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한번 나가보시면요,

○ ○○○ 위원

- 저는 가본 적이 있는데요.

○ 사업부서

- 거기는,

○ ○○○ 위원

- 차가 없나요?

○ 사업부서

- 차도 별로 없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이것은 나가서 보시면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 ○○○ 위원

- 그래서 제가 방금 지도앱에서 찍어봤는데 여기 역촌역에서 응암동까지, 지금 퇴근시간도 아니잖아요. 차로 2km에 10분 걸리는데 이게 길이 안 막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지도앱에서 찍어보니까 2km 구간에?

○ ○○○ 위원

- 네. 이걸 따지는 건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진짜 잘 안 믿어져서 여쭙보는 것이고요.

○ ○○○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도 피크시간대에만 굉장히 심하게 교통체증이 있었다가 빠르게 해소되고, 그 상태가 유지되다가 피크타임에 계속 체증이 일시적으로 생겼다 없어지는 구간이어서 이 구간을 선택하신 걸로는,

○ 사업부서

-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런 의미면요, 불광천하고 합류지점에 대해서는 거기는 아무래도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저희가 구간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을 겁니다.

○ ○○○ 위원

- 제가 하나 여쭙볼게요. 2020년에 투심 의뢰할 때 750m에 428억이었고, 지금 이번에 새로 올리실 때 337m에 428억이에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실제 길이는 반도 안 되는데 예산은 사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 유가 지금 하고자 하는 구간이 집중적으로 예산 소요가 많이 되는 구간이어서 그런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은 일단 여기 설명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법이 조금 변경됐어요. 도심구간인데 파쇄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주민들 불편이 많을 것 같아서 저소음하고 저진동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되는 보강하는 단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안전 문제가 있어서 전면 재철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시겠지만 요즘 공사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대심도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똑같은 금액이 지금 저희가 당초에 3개에 9,500억 원 했다가 500억 했다가 1조 4천억 했는데도 조금 부족하니까 유찰되고 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비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 위원장

- 제가 질문 하나만. 이게 단계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 이 300m를 하기 위해서 이게 뭔가 장기적인 플랜이 뭐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녹번천 복원사업이 저희들 종합계획에 했듯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복원 타당성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걸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시행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가 있고, 공사 중에서도 가장 효율성이 있는 곳을 추가로 했고요. 현재 단기적으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없고. 그렇지만 복원이라는 사업들은 어쨌든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위원장

- 그렇게 구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전액 시비로 요구하셨어요.

○ 간사

- 시 사업입니다.

○ 위원장

- 그건 제가 잘못 알았네요.

○ ○○○ 위원

- 지금 불광천은 복원돼 있죠?

○ 사업부서

- 네, 복원돼 있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원래 당초에 계획 변경했을 때는 거기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구간이 늘어났던 것이고요. 그렇죠?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재검토가 되니까 그 연결되는 부분을 또 빼버렸어요. 이거 언젠가 또 연결하실 거죠?

○ 사업부서

- 이 복원사업은 결국은 진행됩니다.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위원님들 지나다 보면 한 몇 년 뒤면 또 어떤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질 사업들이죠.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구간을 선정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위원

- 오히려 효과적인 것은 이 뒤쪽에 불광천하고 연결되는 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 사업부서

- 그 문제는 말씀드리자면 교통 걱정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교통 문제를 저희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생태환경 복원이라는 목적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 위원

- 어려운 게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간을 선택하셨는데 역설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는 내려가서 걷다가 다시 올라갔다다 다시 내려가야 되는 여건이어서 이용자가 이 과정을 과연 쾌적하게 느낄까라는 건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은 저희가 하면서 단 부분들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질의사항 없으시면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고맙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

- 당초에 작년에 재검토된 부분에서 지금 단순히 그냥 구간만 잘라가지고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줄여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B/C나 이런 나온 것들도 제대로 됐는지도 사실 명확하게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눈에 보인다는 말이죠. 불광천까지 바로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거기까지 연결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게 분명히 연결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볼 때는 사실 두 개가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줄여놓고 있다가 다시 또 다음 것 2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 위원장

-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교통처리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300m를 그냥 포트홀 같은 느낌이잖아요. 하나 그냥 폭 파져 있는 건데 이게 연장이 쭉 돼서 피맥을 계속 설득해서 뭔가 거기에서 그 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면 조금 더 논리적 타당성이 있을 텐데 그게 재상정됐으니까 2분의 1로 줄여서 왔으니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이것은 저희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근거라고 제시한 유인물을 보더라도 이전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재검토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처리에 대한 문제부터 제시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 ○○○ 위원

- 재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천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도 함께 연동되기 때문에. 차량끼리도 사실 도로 폭이 줄었다

늘었다가 반복적으로 되는 그런 피크 구간에서는 당연히 위험도가 올라가니까 양쪽을 다 검토할 때에는 뭔가 근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차량 운영계획이랑 보행동선, 자전거도로 등 교통처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하고요.

경제성 분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재검토 형식으로 갈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 위원 다수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재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 중랑구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제가 사전검토를 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상에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시행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서 저는 큰 계획에 이견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다 생활soc 시설이나 통학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의견을 드렸었고.

하나 지금 오늘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저는 모아타운 지원비가 잡혀 있어서 이게 뭘까 했는데 350만 원이고, 그냥 홍보나 설명회 이 정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 사업부서

- 이번 사업구역 내 일부에 사업구역과 그외 지역에 합쳐서 모아타운 계획

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 자체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동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설명회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의뢰서를 작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350만 원 그렇게 책정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 위원

- 이게 모아타운에서 별도의 지원이나 이런 건 없고,

○ 사업부서

- 그런 건 아닙니다.

○ ○○○ 위원

- 재생사업에서 하시는 거죠?

○ 사업부서

- 예.

○ ○○○ 위원

-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럼 모아타운에서도 주차장을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도 주차장 공급을 하리게 된 이유가,

○ 사업부서

- 기존에 이 자리에서는 40대 분량이 돼 있는 제2공영주차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 공영주차장에 할당되는 만큼을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위원

- 두 번째는 기존 심사자료에서는 안전한 통행로 확보의 사업량이 550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번 안에는 늘어났더라고요.

○ 사업부서

- 거리가 연장된 사항입니다.

○ ○○○ 위원

- 그런데 비용은 그대로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 사업부서

- 저희 안전한 통행로 확보는 도로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했는데 하는 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에다가 보도를 확장한다든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면적을 전체적으로 산정한 것을 하다 보니까 차이점은 있는데 금액은 똑같이 산정해서 알려드렸습니다.

○ 사업부서

- 추가적으로 기존에 여기는 이 주변에 8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있어서 안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보 자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보행로에 대한 것들은 필히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 ○○○ 위원

- 지금 이게 보상비가 32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보상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건가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저희가 구유지가 있는데요 구유지인 주차장에다가 이미,

○ ○○○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한 거죠?

○ 사업부서

- 네, 그걸 반영한 내용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지금 실제 공사비는 생활SOC 하는 81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게 대부분의 사업인데, 이 생활SOC의 주요 목적이 뭐예요?

- 사업부서
 - 우선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공급하는,
- ○○○ 위원
 - 지금 여기 주차장이 짱아요.
- 사업부서
 - 네, 그런데 주차장 면수를 좀 늘려서.
- ○○○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주차대수는 그 대로고.
- 사업부서
 - 아닙니다. 주차대수가,
- ○○○ 위원
 - 지하에 보니까 10대 정도 느는 것 같아요. 11대?
- 사업부서
 - 15대.
- ○○○ 위원
 - 11대 아닌가요? 11대가 느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주차면수가 54대 짱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면 65대 되는 것 아니에요?
- 사업부서
 - 부연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2021년도부터 주민설명회하고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것들을, 생활SOC에 대해서 주민 면담을 했는데 그 당시 내용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시설에 들어가는 장애인센터,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지역에 있어서는 노인정 네 군데하고,
- ○○○ 위원
 - 하여튼 설문조사 하신 그 자료가 있어요. 보면 제일 필요한 게 공영주차

장이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지금 하고 해서 투입한 자원 대비해서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약간은 좀 의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주로 들어가는 게 보면 벤치 갖다 놓고 일단 이런 것들하고, 나중에 장애인 가상현실 이것만 아마 주 같은데,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만든다는 게 어떤 걸 만드시죠? 그 계획이 아마 없으신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지금 멀티트레이닝존이라고 해서 사이클 레이싱이나 이런 것들을 가상 VR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 VR 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 교실하고 같이 마련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그걸 하면 지금 만드는 면적을 보면 한 100평이 약간 좀 넘을 것 같은데, 글썄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또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 없으시면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장

- 이 건은 그때 재상정을 받았고요. 재상정 내용이 제일 큰 게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의퇴하는 거였고요. 그것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 ○○○ 위원

-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8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거의 비슷한 시설에 그냥 장애인 체험시설만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너무 비용 대비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 위원장

- 좀 미흡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이상해요. 효과라고 봤을 때는 그냥 한 층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 이게 조금 문제이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재검토는 좀 그렇고. 조건부 추진으로 해서 이 SOC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할까요? 2단계 심사 가능한가요?

○ ○○○ 위원

- SOC 부분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이미 고시가 됐잖아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세부적으로 실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대개 그런 것들까지 다 해서 생활SOC가 들어가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다 고시되거든요. 이미 이건 고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우리가 우려한 것들이 어쨌든 도시재생사업 심의 때 위원회에 고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 위원

- 예.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다 쓰임에 대한 용도나 비용에 대한 용도나 이런 게 다 고시가 됩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없으시면 말씀대로 이게 고시할 때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 반영된다고 하니까 걱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걱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강서구 공향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제가 사전에 검토했을 때랑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단위사업 5개 중에 완료된 게 있고 앞으로 계획 중인 게 있는 것으로,

○ 사업부서

- 예, 맞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이제 앞두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사업부서

- 그중에서 부지 매입이 된 사업도 있고요. 부지 매입이 된 것은 마을관리 사무소 조성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투입된 것은 활성화 계획 수립 비용.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설계 완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안 한 것은 송정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요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점은 공향동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에서 수영장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현재 수영장의 이용이 저조한가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아니고요. 수영장 이용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수영장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그 수영장을 폐쇄하고 인근에 한 300m 되는 지점에 새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쪽으로 수영장을 새로 신설하고 현재 수영장은 폐쇄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 ○○○ 위원

- 수영장이 몇 년에 시작한 거죠?

○ 사업부서

- 2004년에 시작했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수영장을 이전해서, 철거 후죠. 이전한다고 하셨으니깐 이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47면 이게 이쪽이 주차에 대한 부분들이 시급한 실정인가요?

○ 사업부서

- 송정로 주변에 상권들이 많은데 그 상가들이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상가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를 방문할 수 있는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계속 주차 민원도 많고, 상가들 쪽에서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시면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장

- 수영장은 철거가 아니고 이전으로 얘기하시네요.

○ ○○○ 위원

- 아까 앞에 있었던 중랑구 망우본동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2022년도에 투자심사를 하면서 재생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하라고 해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고시를 다 해버렸네요.

○ 위원장

- 2023년 7월에 고시한 거죠.

○ ○○○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해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 위원장

- 수영장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철거해서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전한다고 하니까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도 또 하고 고지도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는 것도 저희가 방법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걱정으로 가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은 걱정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4. (재정공시 심의)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안)

15. (재정공시 심의)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 수시공시(안)

(자료 배포)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걱정으로 의결하려는데 혹시 위원님 중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 없으시면 걱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 감사합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장

- 이제 심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1차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 안건 총 13건은 적정 7건, 조건부 추진 2건, 2단계 심사 2건, 재검토 2건, 부적정은 0건으로 결정되었으며, 재정공시 심의안건 2건은 적정 2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차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16시 56분, 폐회】